

토크

일상 토크 토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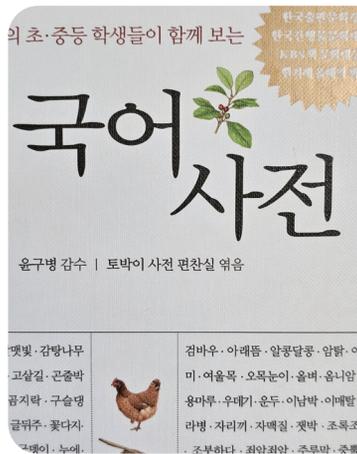
논술 선생님이 욱했다고?

요즘 젊은 세대의 문해력을 생각하면 이러다가는 일상 대화도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아찔해졌던 순간을 소개합니다. 애들아, 폰은 그만 보고 책 좀 읽자

글·사진 김은진 리포터 likemer@naeil.com

시발점 | 이 사건의 ‘시발’점은 욱이 아니란다

아이가 논술 학원을 다녀오자마자 씩씩거리며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. 논술 주제가 역사였는데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을 설명하며 “이 사건의 시발점은 무엇일까?”라고 해서 애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. 뜻을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 덕분(?)에 선생님은 순식간에 비속어를 말한 사람이 돼버렸고요. 애들아, ‘시발’은 처음 시(始), 필 발(發)이야. 즉 시발점은 사건이 시작된 지점이라는 뜻이고~ 한자는 잘 몰라도 문맥을 통해 뜻을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기대였을까요?



민이 나서서 만든 단체. 시인 혁명(市民革命) 시민이 나서서 이제까지 있던 낡은 정치나 경제 제도를 깨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일 시발(始發) 1.기차나 버스 같은 것이 맨 처음 떠나는 것 2.어떤 일이 처음 일어나는 것 《그 일을 시발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》 시발하다 시방(時方) → 지금 시범(示範) 어떤 일을 본보기로 해보이는 것 《뒤 구르기 시범을 보이며》 시베리아(Siberia) 우랄 산맥에서 태평양까지 이르는 아시아 북쪽 지역. 거

